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온도를 지닌 일상 속 시선을
기록한 이미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조 우 이

온도를 지닌 일상 속 시선을
기록한 이미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조 우 이

인 준 서

조우이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조 병 왕 (인)

심사위원 김 상 빈 (인)

심사위원 김 정 연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본인의 작업 중 ‘일상 조각’을 주제로 이루어진 석사청구전에 전시된 작품을 중심으로 내용과 표현 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본인은 부와 교양으로 결부되는 예술이 아닌 접할 수 있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귀하게 여기는 시선과 전시의 목적이 작품과 관객의 거리를 좁히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본인의 신념을 반영하고, 개인이 마주한 공간과 감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작업의 출발점은 공간과 사물이 가진 실체적 의미보다 가변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작품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관객과의 벽을 허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공간과 장소에 대한 묘사는 굳이 인물의 등장 없이도 공감을 일으킨다고 여겼다.

개인적인 심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근거를 사회적 차원으로 찾기 보다는 일상의 가치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본인의 일상 이미지를 채집하여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일상의 감각들은 빠르게 전환되기에 수집의 도구로써 사진 매체를 활용하였다.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날씨와 온도, 습도 등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재구성한 뒤 관화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에서 사소한 변화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정서적 공감을 넘어, 인지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내용적 측면	3
1) 온도를 지닌 일상	3
2) 시선의 기록을 통한 공간 채집	5
3) 사물 떼어 내기	13
2. 조형적 측면	16
1) 즉발성이 강조된 회화적 드로잉으로써의 모노타입	16
2) 각인된 효과를 위한 동판화 기법	18
3) 부식을 통한 분리	20
3. 작품 분석	22
III. 결론	34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록

- [작품 1] <PIENO>, 35×25cm, 종이에 아퀴틴트, 드로잉, 2022
- [작품 2] <Teaspoon>, 35×25cm, 종이에 아퀴틴트, 드로잉, 2022
- [작품 3] <room>, 20×20cm, 종이에 아퀴틴트, 에칭, 2022
- [작품 4] <옥상>, 20×20cm, 종이에 아퀴틴트, 에칭, 스피트바이트, 2022
- [작품 5] <밤산책>, 130.5×97cm, 종이에 모노타입, 2022
- [작품 6] <장>, 32.2×23.3cm, 종이에 모노타입, 2020
- [작품 7] <수납장>, 32.2×23.3cm, 종이에 모노타입, 2020
- [작품 8] <장화>, 50.5×40.5cm, 종이에 모노타입, 아퀴틴트, 2022
- [작품 9] <Cup>, 50×35cm, 종이에 아퀴틴트, 2021
- [작품 10] <일상 조각>, 50×35cm, 종이에 에칭, 아퀴틴트, 2021
- [작품 11] <on/off>, 60×42.5cm, 종이에 에칭, 아퀴틴트, 2022
- [작품 12] <Afterglow>, 30×21cm, 종이에 에칭, 아퀴틴트, 헤이터 기법, 2022
- [작품 13] <Stand>, 35×25cm, 종이에 아퀴틴트, 드로잉, 2022
- [작품 14] <떼어낸 조각>, 50×35cm, 종이에 동판 조각, 2022

참 고 도 판

[참고 도판 1] 타시타 딘, 필름<FILM>, 35mm 컬러 및 흑백 애너모픽 필름,
무성, 11분, Tate Modern Museum, 2011.

[참고 도판 2] 2022년 1월 27일 촬영한 사진

[참고 도판 3] 2022년 2월 3일 촬영한 사진

[참고 도판 4] <La Pie>, Entre 1868 et 1869, Huile sur toile,
89×130cm, Musée d'Orsay.

[참고 도판 5] 2020년 10월 7일 촬영한 사진

[참고 도판 6] 조우이, <눈이 내리듯 빛이 들어왔다>, 29.7×21cm,
종이에 모노타입, 2020

[참고 도판 7] 2022년 4월 8일 촬영한 사진

I. 서 론

어떤 장소든 그곳에 있을 때 느껴지는 온도가 있고 추후 기억되는 순간이 있다. 과거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학창시절을 떠올릴 때나,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때, 길을 걷거나 창가에 앉아 사색을 즐길 때 등 누구에게나 있는 일상의 순간들. 그때 마셨던 커피와 앉았던 의자, 비 오는 날 마주했던 화분과 펼쳐 들었던 우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된다. 그 장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이기도 하고 빛과 그림자, 날씨,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이의 필요에 의한 물건들이 들어서기도 하며 시시각각 변화한다. 모든 시간과 사람의 취향이 한곳에 모여 아주 사적이고 몹시 다채로운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작품에서 사물과 공간이 보여주는 것은 보편적일 수 있지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카페나 책상 같은 일반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수가 경험한 것들로 개인적인 경험을 끌어낸다. 경험이 모여 만드는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간직되는 순간을 상기시킨다. 본인은 그 순간을 회상할 때 같이 오는 시간의 흐름, 빛에 의해 달라지는 공간의 변화를 한데 모아 ‘온도’로 칭한다. 다수의 경험과는 상반되게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을 공간의 온도는 불안과 우울, 일상 속 작은 여유와 행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빛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과 사물처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런 일상의 온도에 주목하여 공간과 사물을 관찰하고 시각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런 온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빠르게 전환된다. 그리하여 수집의 도구로써 사진을 찍어 순간을 기록하고, 채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공간과 사물을 모노타입과 동판화기법으

로 새기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일상 속 온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판화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으로 구분 지어 분석한다. 본론은 3장으로 구성된다. 본론의 내용적 측면 첫 번째 장에서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온도를 개인적 경험과 함께 해석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채집의 과정을, 세 번째 장에서는 공간에서 사물을 떼어 내는 과정에 대해 참고 도판과 함께 서술한다. 본론의 조형적 측면에서는 포착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화 기법의 적용 방식과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전체적인 제작 의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작업 전개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내용적 측면

1) 온도를 지닌 일상

본인은 어느 순간부터 반복되는 권태로운 일상에 의해 작업과 삶 어느 부분에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발전 없이 한곳에 머물러 있는 스스로의 모습은 조바심과 불안을 동반했고 자괴감에 빠져들게 했다. 바늘구멍만 하던 자괴감은 서서히 덩치를 불러 어느새 깊은 우울의 늪이 되어 퍼져나갔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저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고 지나간 행복을 반복적으로 회상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와 산책하거나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주위를 환기시키곤 했다.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며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을 지워냈고 과거가 아닌 현재 본인의 행복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받은 위로들로 본인은 우울과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심리적 불편함은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을 하며 기록한 기록물을 보았을 때 일상은 매일 완벽히 같은 날은 없고, 조금씩 변화하며, 다른 모습의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본인은 각기 다른 형태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심리적 안정감과 해방감을 얻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본인의 경우, 불안의 요소를 추적해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집착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했다. 오히려 무의식 속의 작은 것들에 집중해야 했다. 이러한 경험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록의 필요와 가치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본인은 일상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기억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현재 본인의 일상은 심도 있는 철학적 사유나 진지함과는 꽤 거리가 멀고 드라마틱한 일들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의 연속이지만 작은 일에도 큰 행복을 느끼는 긍정적인 힘을 가진 본인은 일상 속 그 행복의 온도를 찾아내고 시각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 또한 행복은 본인의 삶에서 최우선의 가치이며 일시적인 행복에서 지속적인 행복으로의 전환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본인은 일상 속에서 무심하게 지나쳤던 행복, 사소한 경험을 표현하고자한다.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느낀 행복의 순간, 기억을 상기시키며 같이 오는 시간의 흐름, 빛에 의해 달라지는 공간의 변화를 한데 모아 ‘온도’로 칭한다. 그 온도는 다양한 사유에 의해 포착된다. 예를 들어 길을 걷거나, 창가에 앉아 사색을 즐기거나, 조용한 카페에 혼자 앉아 오롯이 본인만의 시간을 즐길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등등 그런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다른 농도의 빛과 그림자로 채워지며 긴장이 풀리고 여유를 찾게 되거나 차분한 분위기에 녹아들어 주변 소음들조차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런 순간엔 떠다니는 먼지조차 자세히 눈에 들어오게 되며 정서의 만족과 이차적 욕구¹⁾가 충족됨을 느낄 수 있다.

본인은 이런 온도를 느낄 때 수많은 생각이 멈추고 잠시 시간이 정지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여유를 갖게 되는 순간들은 소중하면서 심리적 안정감과 동시에 넉넉하고 가벼운 마음이 동반된다. 고요하게 흘러가는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며, 천천히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본인이 주로 표현하고자 하는 온도는 어떠한 압박감도 느끼지 않고 심리적 불편함 없이 평온함을 느낀 따뜻한 순간이다. 그 순간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넉넉한 여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본인의 작업은 그 온도를 느끼는 일상 속 공간을 채집함과 동시에 시작된다. 채집(採集)이란 ‘널리 찾아서 얻거나 캐거나 잡아 모으는 일’을 일컫는다. 채집행위는 본인의 작업에 기초가 된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온도’의 감각들은 빠르게 전환된다. 따라서 그 감각을 온전한 상태로 포착하기 위해 사진으로 이미지를 채집한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지만, 기억의 오류와 같은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순간을 담아내면 보정작업을 거의 거치지 않는 이상 다른 요소의 개입이 어려운 ‘사진’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2) 시선의 기록을 통한 공간 채집

공간 채집은 본인의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오래된 반자동 필름 카메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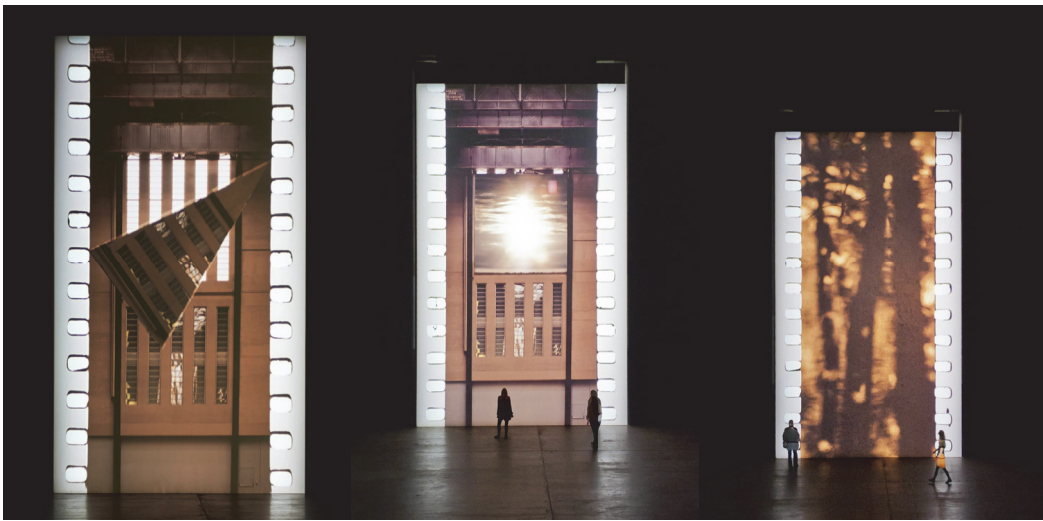
-
- 1) ‘이차적 욕구’는 생명의 유지와는 무관하게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갖는 욕구. 애정, 안정감, 소속, 인정(認定), 성취욕 따위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06.1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sLink>
 - 2) 「채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2.10.30)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23265&searchKeywordTo=3

남대문에서 구입한 골동품 35mm 필름이 사용되는 수동 필름 카메라, 또는 모두에게 하나씩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할 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과 다르게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는 카메라 속에 들어가는 필름이라는 준비물이 필요하다.

디지털 센서로 사진을 저장하는 스마트폰과 달리 필름 카메라의 35mm 필름 속에 채집된 결과들은 빛의 노출에 의해 물리적 매개체인 필름에 정보가 기록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필름 카메라에 사용되는 필름은 한 롤에 정해진 컷 수가 있고 한 번 찍으면 현상을 거치고 스캔이나 인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찍혔는지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스마트폰 속 카메라는 촬영한 즉시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는 간편하고 소지하기 쉬운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며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 사용할 때엔 본격적으로 채집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

현재 번거롭고 사용이 불편한 필름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필름 카메라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날씨, 습도, 필름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기에 미시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온도의 방향성에 부합한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연속촬영이 불가능하다. 한 장을 찍기까지 수많은 선택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본인은 이를 아날로그 작업이 주는 느낌의 미학으로 바라보며 이는 우리의 일상과 비슷하다고 여긴다. 편리한 스마트폰과 예스러운 필름 카메라. 두 매체의 장단점이 명확한 상황에서 본인은 두 가지를 아울러 사용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필름 매체를 사용하는 작가 타시타 딘(Tacita Dean)을 주목하게 되었다.

영국 출신 작가 타시타 딘(Tacita Dean, 1965~)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필름, 드로잉, 사진, 사운드,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작업을 선보여 왔다. 그중에서도 타시타 딘을 특징짓는 매체는 16mm, 35mm 필름으로써 그는 다수의 필름 작업을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타시타 딘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필름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필름 매체를 자신의 주된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삼는다. 자신은 “화가가 페인트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필름의 재료가 필요하다”³⁾고 이야기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예술적 매체로서 셀룰로이드 필름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그는 필름에 어떤 대상물이나 자연적 현상을 디지털 효과 없이 포착해 내며 디지털에는 담길 수 없는 아날로그 매체의 특수성을 작품 전면에 드러낸다.⁴⁾



[참고 도판 1] 타시타 딘, 필름<FILM>, 35mm 컬러 및 흑백 애너모픽 필름, 무성, 11분, Tate Modern Museum, 2011.

3) Tate Modern, Tacita Dean, “FLIM” (2023.04.26)
<https://www.tate.org.uk/art/artworks/dean-film-t14273>

4) 황은, “타시타 딘(Tacita Dean) 필름 작업 연구- 쇠퇴와 시대착오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국내석사 논문, 2020, p.18

2011년 10월 11일, 런던 테이트 모던 터빈 홀에 11분 분량의 35mm 필름이 13m 높이의 거대한 흰색 돌기둥 위에 영사되기 시작했다.⁵⁾ <필름>은 영화 상영을 위한 필름이 아닌 거대한 비율로 확장된 35mm 셀룰로이드 필름 그 자체였으며, 빛에 의한 필름의 변화와 흑백, 컬러 손자국 등이 자유롭게 섞인 화면의 내용은 구상과 추상, 실내와 실외, 자연과 인공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찰나의 현상을 표현해 내는 필름의 사진적 본성을 활용하여 풍부한 미적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다.⁶⁾



[참고 도판 2]



[참고 도판 3]

[참고 도판 2] 2022년 1월 27일 촬영한 사진

[참고 도판 3] 2022년 2월 3일 촬영한 사진

본인은 실내와 실외를 아울러 일상의 한 장면을 필름 카메라로 포착 후 사진으로 담아내었다. 이때 본인은 천천히 빛을 기다리고 감도와 초점을 수

5) Tate Modern, Tacita Dean, “FLIM” ,(2023.04.26), <https://www.tate.org.uk/art/artworks/dean-film-t14273>,

6) 황은, “타시타 딘(Tacita Dean) 필름 작업 연구- 쇠퇴와 시대착오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국내석사 논문, 2020, p.38

동으로 조절하여 촬영하였다. 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림자와 빛깔, 계절감,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온도’를 포착해냈다. 타시타 단과 본인의 작업의 경우 일상 속에서 찰나의 현상을 포착하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지만 단은 작업에 필름자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일상의 기록물로 여기며 작업에 이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빠르고 정확함을 요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날로그 방식은 디지털 방식과 반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느리고 불편해도 때로는 안정감을 주고, 거칠고 모호한 것에서 오는 호기심은 시각적인 만족감과 동시에 평온한 마음을 불러온다. 필름에 빛을 기록하는 방식, 본연의 감성과 색감, 우연적 요소들은 본인의 작업에 기초가 됐다. 본인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상황을 연출하기보다는 빛을 기다리고 찰나를 포착한다. 필름에 일상을 기록하며 겪는 실패의 과정과 수동으로 조리개와 셔터 속도, 감도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은 디지털 방식과 확연한 결과물의 차이를 보인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담아낸 이미지에 의도와 다르게 나온 우연적 요소들에선 채집에 배움과 즐거움을 준다. 본인은 이런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할 때엔 매체의 특수성을 이용해 디지털 보정작업은 최소화하고 판에서 재구성하여 재판한다. 사진은 본인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일상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수단의 일부이다. 현재는 편리성과 범용성이 뛰어난 스마트폰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 모두를 사용하여 채집한다.

기술과 매체의 발달로 아날로그 방식은 점점 쇠퇴하여 기록 매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예스럽지만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본인은 여전히 필름을 활용하여 기억하고 싶은 순간의 빛을 담아 연출되지 않은 이미지를 채집한다.

채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포착(捕捉)이다. 정확한 포착을 위해선 어느 부분에서 눈길을 끌었는지,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물고 집중되는 곳은 어디인지, 또 어떤 온도를 느끼는지 정확하고 세밀하게 살펴본다. 이런 과정들은 다양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절차이며, 세세하게 쪼개어 들여다볼수록 더 나은 결과물들로 증명된다.

그다음 그 속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주인공, 빛 또는 그림자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찾아낸다. 재현의 의미보단 일상의 기록물에 가깝다. 대개 본인의 추억은 영상이 아닌 이미지나 장면들로 기억되며 그 기억을 그리며 살아간다. 본인의 심리적 여유가 동반되는 찰나의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므로 사진의 순간적 포착 기능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포착하고 기록하기에 적합하다.

보통 채집된 결과들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을 법한 익숙한 공간이며 물건들이다. 빛과 그림자, 빛에 의해 변화하는 색과 공간, 그들이 가진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분위기에 매료된 본인의 개인적인 시선이 담겨있다.

일상 속 빛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는 많은 작가들이 있다. 그중 19세기 인상주의 화가 오스카 클로드 모네(Oscar-Claude Monet)는 ‘빛’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작업한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는 전통적인 회화의 색채와 구도를 새롭게 재구성하였고, 빛을 탐구하였다. 그가 최고로 경외한 대상은 오로지 ‘빛’이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은 바로 ‘빛’이 보여주는 모습이며, 그것은 매 순간 변화하며 늘 새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회화에 대한 모네의 새로운 해석이었다.



[참고 도판 4] <La Pie>, Entre 1868 et 1869, Huile sur toile,
89×130cm, Musée d'Orsay.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La Pie>는 에트르타 근처의 시골 마을에서 그린 설경이다. 그의 작품 중 가장 동양적인 작품으로 정중동(靜中動), 즉 조용한 가운데 미세하지만, 까치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⁷⁾이며, 짧은 행복의 순간이 담겨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실제로 접한 <까치>를 통해 따사로운 겨울의 햇살, 빛과 그림자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모네의 작업에서 즉각적인 시각언어를 경험할 수 있었다.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이 작품의 제작과정은 그가 살던 에트르타 근처의 시골 마을에서 그려진 풍경이라고 얘기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심각한 의미나 메시지를 이야기하기보단 그의 눈에 보이는 빛 그 자체를 작품에 담아내었다.

7) 김광우, 『순간의 빛을 영원에 담은 모네』, 아이세움, 2007, p.73.



[참고 도판 5]



[참고 도판 6]

[참고 도판 5] 2020년 10월 7일 촬영한 사진

[참고 도판 6] 조우이, <눈이 내리듯 빛이 들어왔다>, 29.7×21cm,
종이에 모노타입, 2020

[참고 도판 5]는 자주 방문했던 카페를 촬영한 사진이다. 빛이 만들어내는 찰나에 집중했다. 매번 쏟아질 것처럼 들어오는 빛들이 강하게 비추는 그 순간을 담았다. 채집하는 순간에는 잠시 저 자리에 앉아 빛을 맞이하며 책을 읽고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느긋한 상상도 했다. 그렇게 쏟아지는 빛들은 사물에 지속적으로 스치며 탐미적인 이미지로 포착되었다. 현재 이 카페는 또 다른 주인에 의해 새롭게 바뀌었고 이전에 있던 사물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 도판 6]은 채집한 [참고 도판 5]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그려낸 모노타입 작업이다. 작업에는 빛을 표현하려는 여러 시도가 포함되어있다. 잉크

를 올렸다가 굽어내기도 하고 기름을 떨어뜨려 빛의 산란으로 인해 여릿하게 나타나는 빛깔과 빛이 떠다니는 듯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기억의 흔적들만 짚어낸 것은 아니다. 공간과 사물의 교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하려 했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포착한 순간은 순간적인 빛의 모습을 담는 도구였다면, 그때의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사물이 가진 본연의 색을 변경하기도 하고, 정리된 자리를 헤집어 놓기도 하는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다.

본인은 각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시대에 여러 이야기와 개성이 묻어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연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공간을 채집한다. 그 후 채집된 이미지와 기억의 흔적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상을 더 하여 재구성하고 표현한다. 이를 통해 일상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고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다. 친숙한 공간과 사물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안함과 심미적 경험을 통해 관객과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3) 사물 떼어 내기

본래 공간(空間)의 공(空)은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간은 이를 소유한 사람의 손길에 의해 사물들로 채워지게 된다. 공간을 구성하려면 상당한 에너지와 정성이 필요하다. 공간은 주인의 도움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되며, 주인의 손길은 공간을 풍성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적인 공간에서부터 문화적인 공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공간의 활용과 채편은 본인 작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인이 사물 떼어 내기를 위해 채집한 이미지 속 공간과 사물들은 필요로 인해 마련하여 갖춘 것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주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좋아하는 색감으로 꾸며내거나 선호하는 패턴을 포인트로 주거나 통일된 자재로 맞추는 등 공간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각각의 이야기를 가진 사물들로 꾸러진다.



[참고 도판 7]



[작품 1]



[작품 2]

[참고 도판 7] 2022년 4월 8일 촬영한 사진

[작품 1] 조우이, <PIENO>, 35×25cm, 종이에 아퀴틴트, 드로잉, 2022

[작품 2] 조우이, <Teaspoon>, 35×25cm, 종이에 아퀴틴트, 드로잉, 2022

[참고 도판 7]은 집 앞 카페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다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장소이지만 그날의 날씨, 많지 않은 사람들, 말소리와 섞인 적당한 볼륨의 노래들은 본인에게 심리적 여유와 함께 잠시나마 무의식의 불안감을 잠재워준 순간이었다. [작품 1, 2]는 채집한 이미지 [참고 도판 7]을 재구성한 작업이다. 빈 종이에 여백을 뚫으로써 각인 효과가 극적으로 드러나게 했다. 사각의 종이를 공간의 성질을 띤 여백으로 취급하고 찍혀진 종子和 찍힌 대상 사이에 그림자를 직접 그려 넣었다. 공간과 물체 사이를 이어지게끔 그 부분은 드로잉 방식으로 반영하였고, 드로잉 된 부분들은 각인된 부분들의

실체 반영으로 그림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표현상으로는 종이의 오돌토돌한 성질이 반영되게끔 각인되지 않고 찍혀진 여백의 부분에만 얇게 담았다.

사물이 모여 공간의 일부를 구성하고 분위기를 구축했기에 사물이 지닌 온도를 분리하고 그 대상을 소재로 작업하고자 하였다. 피사체를 채워 넣는 것이 아닌 반대로 공간에 채워졌던 피사체들을 떼어 내어 완성된 공간에서 원래 비어져 있던 공(空)의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사물들은 과거의 회상 장면을 보듯 대부분 무채색의 색감을 띠며 일상의 사소하고 낮은 사물들로 작게 표현된다. 그 후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온도와 분위기에 집중하였다. 그것을 떼어 낸 조각이라 칭한다. 이에 따라 각 사물이 지닌 본질(本質)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포착된 공간에서 사물들을 떼어 내는 기준은 본인의 시선이 가장 많이 닿은 피사체, 또는 포착된 사진 속 분위기를 구성하는 주인공들이 된다. 또한, 사물의 윤곽이 선적인 부분에서 곧은 선의 모습만 갖춘 형태보단 자유로운 모습의 변화가 있는 자연스러운 것에 주안점을 둔다.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 화면 안에 들어있는 사물들을 지워내고 취한 뒤 동판에 직접 스케치한다. 그리고 사물의 윤곽을 가위나 칼로 오려 내기도 하고 부식시키기도 하며 여러 방식으로 끄집어내었다.

2) 조형적 측면

1) 즉발성이 강조된 회화적 드로잉으로써의 모노타입

내용적 측면에서 설명했듯이 필름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온도를 느낀 공간과 사물의 이미지를 채집했다. 채집된 이미지를 참고하여 공간의 흔적을 표현했는데, 주로 평평한 판을 이용해 찍는 평판화(Planography) 기법의 하나인 모노타입(monotype)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모노타입 기법이란 제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종류의 판재에 수성, 혹은 유성의 물감이나 잉크로 그림을 그리고 종이에 찍어내는 기법을 말한다. 판에 직접 드로잉 할 땐 양화와 음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려낼 수 있는데 양화는 판에 물감을 붓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밝은 바탕 위에 어두운 형상으로 그리는 것이고, 음화는 전면을 붓으로 칠하거나, 혹은 롤러로 올린 후에 면천이나 탈지면, 면봉, 나무젓가락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밝게 닦아내거나 날카롭게 긁어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⁸⁾

본인은 판화용 잉크에 미디움을 섞어 잉크를 조색하고 플랫 오일을 넣어 농도를 조절하여 각기 다른 농도의 다양한 색을 만들어 냈다. 이는 서로 다른 색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 외에도 잉크를 아크릴판 위에 올렸다가 긁어내거나 깨끗하게 닦아내기도 하였으며, 오일을 떨어뜨려 빛이 분산되는 효과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모노(mono)⁹⁾’는 ‘하나, 유일한, 단일의 뜻으로, 복수의 원본을 생산하

8) 임영길, 『판화 기법을 총망라한 판화의 기본서 Printmaking 판화』, 2014, 미진사, p.304

9) 「mono」, 네이버 영어사전 옥스퍼드, (2023.04.27.)

<https://en.dict.naver.com/#/entry/enko/f488887a953e48618fcdf9dc24db7e44>

는 판화와는 달리 한 장의 에디션을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 판화에 비해 회화적 접근이 쉽고 작가의 표현이 자유로우며 그동안의 판법에서 볼 수 없는 표현의 확장이 가능하다.

모노타입 작업을 진행하며 표현하고자 했던 중점적 조형 요소는 빛, 그림자 그리고 사실적 묘사보다는 빛을 통해 나타나는 빛깔이다. 모노타입은 전통적인 판법에서 제한되는 부분들과 다르게 평평한 판을 매개체로 활용하여 즉흥적이고 직접적인 회화적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기에 용이한 기법이다. 잉크를 올리고 천이나 손으로 지워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을 나타내고, 공간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잉크를 올린 판 내에서 면봉, 이쑤시개, 스퀴지 등 다양한 생활 도구를 활용해 수정한다. 밀어내고, 지워내고, 긁어내며 그려낸 공간의 생동감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겨진 부분 없이 평평한 판 위에 올라간 드로잉을 찍어 내다보니 종이 본연의 질감, 채도와 색감에 의지하게 됐고 두께감과 깊이감에 있어서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단일의 이미지만 생성할 수 있어 다량의 이미지 채집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표현성으로 다른 이미지를 참고하여 인쇄해도 비슷한 분위기가 표현될 때가 있다. 모노타입 작업의 특징이었던 것이 작업을 이어갈수록 한계로 다가왔다. 이러한 작업의 결점을 극복하기 부식을 통해 시간의 흐름, 각인을 나타낼 수 있는 동판으로 깊이감과 한정된 표현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2) 각인된 효과를 위한 동판화 기법

동판을 제판할 때는 짧은 고민의 순간마저 담긴다. 본인은 부식방지액인 하드 그라운드를 판에 바르고 염화제이철¹⁰⁾을 통해 제판한다. 강박적인 깔끔함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 손때 묻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는 것들은 본인의 미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편안함을 가져다준다. 또한 스쳐간 흔적들이 모두 나타나는 섬세한 기법인 동판은 모두의 이야기를 담기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작품 3]

[작품 4]

[작품 3] 조우이, <room>, 20cm×20cm, 종이에 아퀴틴트, 에칭, 2022

[작품 4] 조우이, <옥상>, 20cm×20cm, 종이에 아퀴틴트, 에칭, 스피트마이트, 2022

10) 「 염화제이철 」; 동판을 부식할 때 사용하는 용액,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판화용어 순화집』, 2013, 한국현대판화가협회, p.44

부식액을 이용해 제작되는 동판 기법은 자연스럽고, 가끔은 의도치 않은 결과물에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미와 아날로그적인 측면,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것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본인은 동판의 제판 과정에서 염화제이철, 산 등의 부식액을 사용하여 금속판에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의 에칭¹¹⁾, 판에 송진을 뿌려 가열하여 녹인 뒤 부식액에 담가 무수한 점들로 톤을 만들어 내는 아퀴틴트¹²⁾, 송진을 뿌려 가열하는 방식은 같지만, 붓에 산을 묻혀 직접 판에 칠하면서 부식하는 노출 부식의 스피트바이트¹³⁾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동판에 부식방지막인 하드 그라운드를 바른 뒤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채집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부식방지막을 긁어내며 드로잉한다. 이를 라인 에칭이라 칭한다. 초기엔 [작품 3]처럼 동판에도 공간을 그려내고 사물을 그려 넣어 부식시켜 작업했었다. 동판기법의 특색대로 시간의 흐름은 잘 표현됐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빛과 온도, 그것을 통해 변화하는 빛깔들을 여러 색으로 표현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칭과 아퀴틴트 기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시간 차이를 두어 여러 번 부식시키는 것은 이미지의 깊이감과 명도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사물을 돋보이게 하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강점이 되었다. 또한 [작품 4]에는 부식액을 묻힌 붓을 사용하여 판재에 직접 그려 부식시키는 스피트바이트 기법을 추가하였다. 이 기법은 피사체의 외각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번져 어슴푸레한 톤을 나타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형식으로 공간을 표현하는 것은 다색의 빛깔로 포착되는 공간을 표현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공간을 그려내는 것에 있어서선 명암 대비의 효과가 큰 이미지 위주로 작업하였으며 사물을 그려내

11)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판화용어 순화집』, 2013, 한국현대판화가협회, p.36

12)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판화용어 순화집』, 2013, 한국현대판화가협회, p.36

13)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판화용어 순화집』, 2013, 한국현대판화가협회, p.36

는 작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부식을 통한 분리

앞의 내용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듯이 포착한 이미지를 참고하여 제판한다. 채집된 이미지들에서 대부분 시각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특정 사물들을 핵심으로 둔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든 모습을 담는다. 본인은 이런 사물들이 공간을 구성하고, 온도와 흔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하여 이미지들의 중심인 사소한 사물을 작게 그려냈다.

공간을 그려냈던 동판과 가장 큰 차이점은 판재의 두께다. 분리를 위해 얇은 동판을 사용하였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판을 부식시켜 떨어뜨릴 수 있다. 먼저 하드 그라운드를 바르고, 사물의 실루엣을 그린 뒤 부식시킨다. 그리고 판을 꺼내 부식액을 흐르는 물에 닦은 뒤 테두리의 안쪽만 부식방지액을 긁어내거나 닦아낸 뒤 건조시킨다. 그 후 또다시 부식과정을 거친다. 여러 차례 드로잉과 부식과정을 거치면 판과 그려낸 사물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얇은 동판의 장점은 가위나 칼을 이용해 외각을 오려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은 동판을 잘라내기도 하지만 여러 번 부식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부식된 판과 각인된 사물을 분리해 켜켜이 쌓인 피사체의 시간의 흐름과 우리의 일상에 녹아든 사물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작품에 생동감과 생명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물을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의 일부는 사라지고 부분적으로 남는다. 시간이 흐

르며 기억의 부분이 하나의 이미지로 축소되는 과정을 작업으로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분리된 사물은 대부분 무채색의 색감을 띠고 일상의 간과되기 쉬운 익숙한 사물로 작게 표현되며, 떼어 낸 조각이라 말한다. 이를 통해 사물이 지닌 본질(本質)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부식되어 떨어져 나온 판재는 사물의 실재가 되고, 남겨진 판재는 사물의 실루엣을 통해 형상의 재현이 된다. 자연스럽게 부식되어 떨어져 나온 판을 종이에 붙여 판 자체를 작업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자연스럽게 굽히고 구멍 나 뚫린 판은 실루엣을 통해 사물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붙인 판속에서 형태는 변함없지만, 텅 빈 자리는 보는 이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을 시도하며 부식액을 사용한 동판 작업에서는 모노타입에서 부딪혔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3. 작품 분석



[작품 5] <밤산책>, 130.5×97cm, 종이에 모노타입, 2022

이 작품은 늦은 밤 산책 중에 포착한 장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산책을 나가며 어지러운 마음을 통제했다. 채집한 이미지를 보고 본인은 그 날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했던 기억은 흐려지고 불안했던 감정만 분명해졌다. 본인은 제관할 때 채집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날씨, 시간, 그날의 기분 등을 회상하며 그려냈다.

작은 판화지 한 장에 이미지 전체를 담았던 이전 작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작품 5]는 부분적으로 나눈 이미지를 같은 크기의 아크릴판에 그려 내어 인쇄하였다. 이는 하나의 장면 속 조각난 기억을 의미하며 불완전한 마음을 가졌던 당시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배경이 되는 판넬에 아크릴과 젤스톤을 섞어 거칠게 배경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조각들을 이어 붙여 침핀으로 고정시켰다.



[작품 6]



[작품 7]

[작품 6] <장>, 32.2×23.3cm, 종이에 모노타입, 2020

[작품 7] <수납장>, 32.2×23.3cm, 종이에 모노타입, 2020

[작품 6, 7]은 2020년 본인의 일상 이미지를 모노타입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공간 시리즈의 일부이다. [작품 6, 7]의 공간은 본인의 친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장소에서 포착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특별한 날 모인 장소와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들을 기록하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했지만, 사물과 함께 나온 사람의 형상은 지운 채 판을 제작하였다. 다수가 공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에 대한 묘사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각기 다른 시간, 장소에서 포착된 이미지는 사물과 공간이 존재한다는 공통점과 판 위에 올린 잉크를 지워내고 밀어내며 시각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했다. 작은 아크릴판에 잉크를 올려 공간에 존재하던 사물들을 그려내고, 지워내고, 긁어내며,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공간을 그려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감각과 빛이 포착되는 부분들을 밀어내고 지워낸 점이다. 얼룩덜룩 지워진 부분들은 오묘한 빛깔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고 깔끔하게 지워진 부분들은 빛이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을 담아낼 수 있었다.



[작품 8] <장화>, 50.5×40.5cm, 종이에 모노타입, 아퀴틴트, 2022

[작품 8]은 비 오는 날 장화를 신고 산책을 하며 채집한 풍경 이미지를 2가지 기법을 이용해 완성한 작품이다. 먼저 모노타입 기법으로 찍어냈다. 첫째, 잉크에 오일을 더하여 묽게 만든 뒤 롤러를 굴려 바탕이 되는 색을 판에 깔아주었다. 둘째, 면천을 사용해 바탕에 깔린 잉크를 닦아내며 가시광선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붓에 잉크를 묻혀 우거진 나무 아래에서 바라본 시선을 그려내었다.

그리고 찍어낸 모노타입 위에 다른 공간에서 포착한 장화를 더하였다. 동판에 본인의 장화를 그리고, 아퀴틴트 기법으로 부식시켰다. 이는 모노타입 작업을 하며 마주하였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한 시도이다.

본인은 빛이 잘 드는 맑은 날, 빛을 통해 발현되는 빛깔에서 자극적인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장마철 비가 오는 날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쓰고 나가서 산책하며 영감을 얻기도 한다. 비 오는 날 본인은 장화를 신고 외출하는데 본인에게 장화는 외부의 빗물과 빗물에 의해 군데군데 생긴 웅덩이로부터 지켜주는 수단으로써 이용된다. 이를 통해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안정적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본인은 이 작품을 통해 본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물에 대한 고찰을 해 볼 수 있었고, 본인이 숲길을 산책하며 느낀 감각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 9]

[작품 9] <Cup>, 50×35cm, 종이에 아퀴틴트, 2021



[작품 10]

[작품 10] <일상 조각>, 50×35cm, 종이에 에칭, 아퀴틴트, 2021

[작품 9, 10]은 2021년 제작된 사물 떼어 내기 시리즈 일부이다. [작품 9]는 본인이 학교에 가기 전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매일 사 먹던 커피를 떼어 낸 작업이고, [작품 10]은 채집된 여러 날의 일상에서 각각 떼어 낸 사물들이다. 각 사물들은 일상 속에서 익숙하고 사소한 피사체들이기에 동판에 의도적으로 작게 그려내고 부식시켜 각인하였다. 또한, 본인의 일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물들은 과거의 형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무채색의 색감을 띠고 있으며 릴리프 형식과 인탈리오 형식의 잉킹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11] <on/off>, 60×42.5cm, 종이에 에칭, 아쿼틴트, 2022

[작품 11]은 본인의 상상 속 ‘생각 버튼’이다. 이 스위치는 깜깜한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는 날마다 나타난다. 보통 그 시간에 드는 걱정들은 단숨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본인은 끊임없이 부유하는 생각들이 잠시 중단되길 희망한다. 하염없이 이어지는 생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선 껏다 켜기 편리한 스위치가 본인의 긴 밤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스위치는 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위치하며,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창조되는 스위치이며 끄고 켜 때마다 나는 툭탁거리는 소리는 본인의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작품은 본인의 무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를 포착해 이를 시각화하였다. 이 작품에선 여러 단계의 톤을 만들어내 부드럽지만 깊고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먼저 에칭 기법을 사용하여 중앙에 상상을 통해 포착된 이미지의 주인공인 스위치를 각인시켰다. 또한, 스피트바이트 기법을 사용하여 스위치에 세월의 흔적을 나타내는 오래된 분위기와 부드럽게 번지는 듯한 미세한 톤을 만들어 냈다. 그 뒤 깜깜한 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순간 떠다니는 기억의 파편, 불안과 근심을 표현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부분에 아퀴틴트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미세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밤 본인의 심리를 지배하는 불안과 걱정은 잠시 꺼두고 평온한 마음을 가진 채 불편함이 없는 좋은 밤을 보내길 바라며 표현하였다.



[작품 12] <Afterglow>, 30×21cm, 종이에 에칭, 아퀴틴트, 헤이터 기법, 2022

[작품 12]는 자주 가던 카페에서 포착된 이미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테이블에 놓인 가지각색의 모습을 가진 조명들은 주인의 취향이 담긴 형태로 수집된 듯 보였다. 개성 가득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본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었고 따뜻하게 발광하는 빛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포근하게 느껴졌다.

제판의 방법으로 아퀴틴트와 딥에칭 기법을 이용하여 조명의 형태를 그려냈다. 빛의 산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부식방지막을 붓에 묻혀 뿌려내고 건조시켰다. 완벽하게 건조시킨 다음 부식액에 담가 판을 부식시켰는데 동판의 딱딱한 사각의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외각의 형태를 둥글게 만들어 제판하였다.

이 작품의 특징은 한 판에 다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헤이터 기법을 사용하여 찍어낸 것이다. 헤이터 기법은 보편적으로 동판에서 사용되는 제판 과정과 잉킹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검은색 잉크에 미디움과 오일을 섞어 옅은 회색빛 잉크를 만들어 낸 뒤 판면에 골고루 도포하여 인탈리오 형식으로 잉킹하였다. 그다음 노란빛을 띠는 잉크와 또 다른 회색빛 잉크에 미디움과 오일을 첨가하고 점성에 차이를 두어 경도가 다른 롤러로 볼록한 부분에 올렸다. 마지막으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찍어내는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하였다. 점도가 다른 잉크가 한 판에서 서로 섞이지 않고 각자의 색을 내게 하면서 본인이 동판 작업을 하며 마주쳤던 빛 표현과 색 표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과 그에 따른 따뜻한 온도를 표현하였다.



[작품 13]

[작품 13] <Stand>, 35cm×25cm, 종이에 아퀴틴트, 드로잉, 2022



[작품 14]

[작품 14] <떼어낸 조각>, 50×35cm, 종이에 동판 조각, 2022

[작품 13]은 [작품 1, 2]와 동일하게 제작된 작품이다. 빈 종이의 여백을 사각의 공간 형태로 정의하고 찍혀진 종지와 찍힌 피사체 사이에 그림자를 그려 넣었다. 그림자를 그려 넣을 때 종지의 오돌토돌한 성질이 반영되게끔 얇게 갈아 비벼내며 담아냈다. 공간과 물체 사이를 이어지게 드로잉 방식으로 각인된 부분들의 실체 반영이다. 따라서 드로잉 된 부분들은 그림자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작품 14]는 [작품 13]을 만들며 부식되어 떨어져 나온 동판 자체를 종지에 붙인 작업이다. 부식되어 떨어져 나온 판재는 부식액의 원인과 결과로 자연스럽게 굽히고 구멍 난 채로 각인되었다. 또한, 뚫린 판의 실

루엣을 통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사물을 유추하고 상상해볼 수 있게
의도하며 작품을 제작하였다.

Ⅲ. 결 론

본인은 온도를 지닌 일상 속 시선에 대해 논하기 위해, 본인의 일상을 포착하고 채집하는 방법과 빛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삶의 조각들이 본인 작품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행복과 여유를 느끼기엔 주어진 시간은 짧고 응당히 해야 할 일은 넘쳐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곳에 머물러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불안과 우울이 반복됐다.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하나둘씩 찾아보며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이루는 습관을 버릴 수 있었다. 과거가 아닌 현재, 스스로 행복을 찾을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삶을 영위하길 바라며 일상을 관찰하고 수집하기 시작했다.

찰나의 순간, 편안함과 여유를 동반하는 공간을 포착하고 일상채집을 통해 본인이 느낀 온도와 분위기를 나타냈다. 그렇게 본인의 일상 속 사적인 시선과 변화를 기록하고 수집하여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본인이 논하고 있는 ‘온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며 개인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습의 성격과 개성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연적인 요소임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본인은 우리에게 낯익은 공간들과 사물들에서 오는 온도같은 익숙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접근했다. 이를 통해 각자의 무의식 속 사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친근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본인 작업에 있어서 판화의 간접 기법은 요긴하게 쓰인다. 찍어내고 부식시키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크기에 대한 한계는 전통적인 판화 기법을 사용하는 본인에게 앞으로의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

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판화 기법만 고집하기보다 색다른 시각적 표현 방법을 위해 실험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오랜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 기억들은 모두 특정한 ‘장면’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시간을 이미지로 기억한다. 그렇기에 각자의 삶 속에서의 의미를 갖는 이미지들은 모두 다 다르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된 감정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하고 행복이라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 속 찰나의 순간들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들 중 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느꼈던 행복의 순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광우, 『순간의 빛을 영원에 담은 모네』, 아이세움, 2007, p.73.

「여릿 - 하다」; 빛깔이나 소리, 형체 따위가 선명하지 못하고 약간 흐리거나 약한 듯하다. 네이버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2023.04.28)

‘이차적 욕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06.1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sLink>

임영길, 『판화 기법을 총망라한 판화의 기본서 Printmaking 판화』, 2014, 미진사, p.304

「염화제이철」; 동판을 부식할 때 사용하는 용액,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판화용어 순화집』, 2013, 한국현대판화가협회, p.44

「채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10.30),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23265&searchKeywordTo=3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판화용어 순화집』, 2013, 한국현대판화가협회, p.36

황은, “타시타 딘(Tacita Dean) 필름 작업 연구- 쇠퇴와 시대착오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국내석사 논문, 2020, p.18, p.38

「mono」, 네이버 영어사전 옥스퍼드, (2023.04.27)
<https://en.dict.naver.com/#/entry/enko/f488887a953e48618fcdf9dc24db7e44>

<La Pie>, Musée d’Orsay, <https://www.musee-orsay.fr/fr/oeuvres/la-pie-715>

Tate Modern, Tacita Dean, “FLIM” ,

<https://www.tate.org.uk/art/artworks/dean-film-t14273>

ABSTRACT

A Study on the Eye-catching Image in Everyday Life with Temperature - Focusing in Researcher' s work -

Cho Woo I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 and expression method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work exhibited in the Master's Exhibition under the theme of "Everyday Sculpture" among my works from 2020 to 2023.

It reflects my view that art should be cherished as an accessible experience and my belief that the purpose of the exhibition should be about narrowing the distance between the work and the audience, rather than as art that is associated with wealth and refinement, and it is a study on how to express the space and emotions that an individual encounters.

The starting point of my work is to deal with the story of "people" who are more variable than the actual meaning of space and objects. Paradoxically, it is difficult to find a human figure in my work, and this can be an element that breaks down the wall with the audience. I considered

that the depictions of spaces and places that many universally experienced can evoke empathy even without the presence of characters.

I developed a story by collecting images of my daily life along with reflections on the value of everyday life based on personal images and experiences, rather than looking for theoretical grounds on a social level. Photography was used as a tool for collection as everyday sensations are quickly shifted. It was recorded using a smartphone that I usually carry with me and a film camera that produces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variables such as weather, temperature, and humidity. I then reconstructed the story I wanted to express and expressed it through printmaking. I tried to find the value of life by discovering small changes in my daily life that I had inadvertently overlooked. Through my work, I hope to create cognitive empathy with the audience beyond emotional empathy.